

WELLKNOWN UNKNOWN

August, 2016 | 안동선 에디터



베리명스의 인스톨레이션 뷰

남희연, 타, 오인의 작품이 아우러진 인스톨레이션 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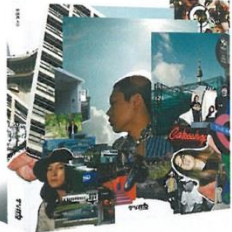
WELLKNOWN UNKNOWN

축망 받는 작가들의 개성 강한 작품들이 국제갤러리의 두 개 관을 자유롭게 채우고 있다. 김성원 큐레이터는 평소 눈여겨본 젊은 작가 7팀을 <유명한 무명>이라는 제목 아래 모았다. 그는 "오로지 유명해지겠다는 일념으로 질주"하는 세태를 돌아보며 오늘날 젊은 작가들에게 진정한 유명을 위해 무명과 사라짐의 전략을 제안한다. 그의 도를 의식하진 그렇지 않진 작품들의 다채로운 어우러짐이 흥미롭다. 지난해 베니스 비엔날레의 본 전시에 비디오 작업으로 참여했던 남희연 작가는 자신의 전공이었으나 대학 졸업 이후 한 번도 선보인 바 없는 조각 작품을 내놓았다. 순수미술의 형식을 통해 그래픽 디자인의 조형요소들을 보여주는 김영나는 자신의 디자인을 담은 도록의 이미지를 개별적으로 선택해 재조합, 재배열한 벽화 작품을 선보인다. 피아노를 전공한 디자이너 오민은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소나타 2번 1악장을 기하학적 도형으로 전환된 창작 정보로 옮겨낸다. 이밖에도 김희천, 베리명즈, 이윤이, EH의 고유한 세계로 발길을 붙잡는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7월 31일까지. 에디터/ 안동선



사진조각의 미장센

권오상의 개인전이 아라리오갤러리 서울에서 열린다. 권오상 작가는 현대미술 장르의 혼성과 경계를 간명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평가 받는다. 그의 작품에서는 조각과 사진, 두 장르의 속성이 결합한다. 집자에 등장하는 이미지를 오리고 철사를 붙여 바닥에 세워서 평면사진에 조각의 지위를 부여한다. 일렉산더 칼더의 '스테발'로부터 영감을 받은 'New Structure' 시리즈는 이미지를 크게 확대하고 그것들을 새롭게 구조화했다. 신작 'Relief'는 집자 (엘레미파)에서 채집한 이미지들을 입체적으로 배치한 소조 작업으로 기이한 오브제들이 소재로 등장한다. 이번 전시에는 'New Structure' 11점과 'Relief' 6점이 공개된다. 8월 21일까지. 에디터/ 김아름



BOOK

페나근사한 서울

서울에서 태어나고 서울에서 일하고 부대끼며 살아오고 있으면서도 정작 서울을 잘 모른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잠이 오지 않는 여름밤, 정말 멋진 밤을 보내고 싶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 펼쳐보고 싶은 책이 나왔다. <비지>의 패션 에디터였으며 현재 패션 컨설팅 스튜디오 'edit'의 대표인 오민희가 엮은 <Edit. Seoul>은 애증의 도시 서울에서 가장 근사한 것들만 모아놓은 책이다. 뮤지션 오혁, 스타일리스트 박재준, 모델 아이린, 그래픽 디자이너 육근남 등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만의 취향을 만들어온 26명의 서울사람들이 자신이 사랑하는 서울을 털어놓는다.

MUST READ BOOK



가만한 당신

서른다섯 명의 부고기 담긴 책 <가만한 당신>의 주인공들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죽음을 이해하는 것으로 죽음을 예방하려고 한 자살 연구자 노민 파버로, 오르기슴의 해방을 주장하며 뉴욕 중심부에 최초의 여성 전용 섹스토키 슌을 열 델 윌리엄스, 마리화나 합법화를 위한 장지를 발행한 마이클 존 케네디 등 포털 사이트에 이름을 검색해도 정보가 나오지 않는 이들이 내디딘 어렵고 귀한 한 걸음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이야기였다.



아름답고 쓸모없기를

유능한 편집자로서 좋은 책을 만들어온 김민정 시인이 이번에는 자신의 새로운 시집을 들고 돌아왔다. 직설적인 에너지가 넘실대던 전작 <그녀가 처음, 느끼기 시작했다> 후 무려 7년 만에 세상에 나온 시집이라 더욱 반갑다. 한동안 시를 쓸 수 없었던 그녀는 이번 시집 <아름답고 쓸모없기를>에서 한층 무르익은 사유를 보여준다. 자유로운 에너지의 여자가 상수화를 때 어떤 길이를 갖게 되는지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책이기도 하다.



타인들의 책

화려한 캐스팅의 작가들이 포진해 있는 재미있는 프로젝트의 단편집은 요즘 같은 계절에 에디터나 들고 다니며 읽기에 딱 좋다. <타인들의 책>의 미션은 간단했다. "그 무엇에도 구애 받지 않고 자신이 이야기하고 싶은 인물을 만들 것." 그리하여 조지 손더스나 닉 혼비, 조너선 사프란 포어, 데이비드 미첼 등 우리가 사랑하는 23인의 이야기꾼들이 23인의 '타인'들을 탄생시켰다. 우리의 일상을 자극하는 매력적인 타인들이다. 에디터/ 김지선